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브라질은 미래의 나라이다. 그러나 항상 미래의 나라로 남을 것이다”라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광활한 영토와 풍성한 자원을 지닌 브라질이 이제껏 강대국이 되지 못한 배경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고 과거의 한계에 잠혀있는 브라질 자신의 모순을 꼬집은 얘기다.

이러한 브라질이 최근 국제무대에서 우뚝 섰다. 돌아보면, 1960년대 쿠데타의 악순환 아래 군부 입은 혁명 장성들이 대통령을 돌아가며 했던 나라. 우리와 비교해 국가 중심의 조합주의(corporatism)로 인해 민주주의의 개화를 예견하기 어려웠었다. 2000년대 초까지 대다수 국민은 빈곤, 그리고 국가는 외래에 빠져 IMF로부터 지원 없이 살아가기 힘들었던 브라질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서 BRICs의 핵심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두 번에 걸친 대통령에서 블라난 블라 덕분이다. 2003년 세 번째 도전 글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그가 무려 80% 이상의 국민적 지지 아래 평민으로 돌아갔다. 4년 쉬었다가 한 번 더 하라는

브라질 블라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블라가 취임할 당시 브라질의 국가신인도는 벼랑 끝에 밀려 있었다. 카르도조 집권 8년 동안 늘어난 무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짚어야 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지난 8년간 연평균 4%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브라질은 제3무국의 짐지를 떼고 체권국으로 바뀌었다. 일자리가 1500만 개나 늘어났다. 밀바닥 하위 10% 인구가 약 60%의 소득증가를 기록했다. 극빈층이 줄고 중산층이 늘어났다. 기아 뇌치를

위해 ‘포미 제로’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불사 파밀리아’와 같은 정책의 효과 덕택이다.

우리의 경우 블라는 노무현 그리고 카르도조는 김대중에 비교될 수 있다. 카르도조와 김대중은 가방끈의 차이를 넘어 박학다식한 점에서 비슷하다.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지만, 카르도조는 종속이론가로서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고 김대중은 직업정치인답게 위기극복에 앞장섰었다.

노무현과 블라는 출신과 성장 배경에서 공유하는 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으면서, 노무현은 인권변호사로 노동운동을 도왔고 블라는 선반공으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녔다.

브라질의 노동자당은 사회주의 유도파이에 대한 환상을 접고, ‘연대’와 ‘성장’ 그리고 ‘약자 보호’와 ‘대외 개방’을 동시에 중시하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한다.

블라는 노동자당의 다수파를 설립하여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중도실용의 개혁 방향 아래 기득권 세력이라 할 금융과 대체별 세력을 제외하고 내수기업인, 수출기업인, 노동자, 농민을 염두에 생산자동맹을 만들어 ‘사회운동과 ‘금융시장’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블라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는 막스, 레닌, 트로츠키의 상징을 버리고 노동자당을 이끌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사민주의자 중 정체성을 밝히는 전통 좌파들의 요구에, 그는 “나는 금속노동자일 뿐이다”라고 응수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기본색도 약하지만 정책이 취약하다.

모름지기 정당은 정책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지 만 여야 정당들은 모두 고만고만하다. 진정 이념적 바탕색을 갖고 정책적 논쟁을 하면서 우리의 현안인 남북관계, 성장동력, 양극화, 일자리, 복지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서울대 사회학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김기홍



중세 유럽 속담 중에 “도시의 공기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표현이 있다. 그러한 속담이 나오게 된 계기는 종세 계급 사회에서 도시는 유일한 자유민들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 민만이 영주나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시민란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과거 우리의 도시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이 아닌 왕의 신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의 자율성을 미

시들은 최근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자본의 역

의 유출을 막고 도시의 자생력을 키워

던 볼로냐처럼 내실 있게 성장하는 도

시가 있기도 하다.

2000년 유럽의 문화 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던 볼로냐의 경쟁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지만 그 중 하나는 혼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이다.

과거 우리의 도시는 자율성을 바탕

으로 하는 시민이 아닌 왕의 신민을 기반

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의 자율성을 미

창조 꿈꾸는 도시 광주의 조건

미했다.

서구의 도시처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저항을 하거나 타협을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아시아 사회가 이를 형식에 의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항의를 비롯한 자율적 기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양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도시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현대 사회는 국가 단위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사회다. 과거에는 국가가 경쟁에서 중요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도시가 경쟁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창조적 사고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모두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오늘 달러를 기반으로 과도한 투자를 부추겨서 한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두바이는 사막의 신기루가 되었고 금융 기업만 키웠던 몇몇 국가와 도

워크를 통해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하나 인간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 매우 어렵다.

또 브라질의 꾸리찌비는 창조, 유연, 단순, 자비용을 통해 대중교통을 비롯한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던 도시이다.

급행버스시스템(BRT)을 도입하여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꾸리찌비는 많은 도시들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 가며 지하철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했던 것이다.

급행버스시스템(BRT)을 도입하여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꾸

리찌비는 많은 도시들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해 가며 지하철을 도입하거나 아니

면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수단을 선

택했던 것이다.

2011년 광주는 새로운 창조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창조를

꿈꾸는 광주의 조건으로 자율성을 바탕

으로 한 시민, 도시의 발전 동력을 제공

할 수 있는 고등 교육 기관,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한다

고 본다. 새롭게 시작한 한해가 더욱 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민족주의 이면의 모습 간과 말자

럼 승격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확실히, 건강한 사회의식이 있는 사회에서는 아기되며 어려운 현상이다. 실제로, 건강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가치가 중요하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적 행위로 대변되며 기보다는 자신의 ‘보람’과 ‘긍지’로 승화되기를 원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 혹은 주체성 내에서 자신의 삶이 진행된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애기되는 국

가 영웅화는 단순히, 국민적 영웅으로

한 인물을 ‘신격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까지 사회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신격화된

그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견전한 비

판조차도 ‘공동체의 적’으로 인식되고

승화되기를 원한다.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 애기되는 국

가 영웅화는 단순히, 국민적 영웅으로

한 인물을 ‘신격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까지 사회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신격화된

그들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견전한 비

판조차도 ‘공동체의 적’으로 인식되고

승화되기를 원한다.

그 옛날 나치가 가졌던 국가영웅화와

민족 우월주의가 한 사회를 왜곡함과

동시에 타민족은 물론 자신들까지도 공

멸하게 했음을 여전히 인류의 상처로

남아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영웅주의는 결국

사회를 흐름시키고 민족적 배타성만

기울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끌어 맞춘 국

가의 영웅은 인위적인 영웅일 뿐 우리

사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진정 영웅을 찾고 싶다면 억지로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주변에 땀 흘리며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아가는 구성원 각각을 국가적, 사회적 영웅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아닐까? 이 글이 국가 영웅화로 변질되는 민족주의 이면에 또 다른 차별과 침해가 야기될 수 있을을 항상 의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옛날 나치가 가졌던 국가영웅화와 민족 우월주의가 한 사회를 왜곡함과

동시에 타민족은 물론 자신들까지도 공

멸하게 했음을 여전히 인류의 상처로

남아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영웅주의는 결국

사회를 흐름시키고 민족적 배타성만

기울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억지로 끌어 맞춘 국

가의 영웅은 인위적인 영웅일 뿐 우리

사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진정 영웅을 찾고 싶다면 억지로 영웅을 만들기보다는 주변에 땀 흘리며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살 아가는 구성원 각각을 국가적, 사회적 영웅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일 아닐까? 이 글이 국가 영웅화로 변질되는 민족주의 이면에 또 다른 차별과 침해가 야기될 수 있을을 항상 의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남도발전연구원 주임연구원〉

잘못된 음주문화 폐해 심각 이제는 개선해야

저녁 무렵 술집이 많은 거리에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늘도 술에 찌들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경찰서 지구대에 불잡혀 경찰들을 곤혹시킨 취객들이 도시의 어두운 단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네바다주에는 향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각 주마다 법률을 달리 적용하며 음주행위와 관련해 아주 엄격한 금지조합들이 있다. 수도인 워싱턴DC는 길거리에서 주정을 하기만 해도 즉시 수갑을 채워 끌고 가고 뉴욕주에서는 주류판매점에서 술을 사고 차에 실었을 때 운전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내에 술병뚜껑이 조금이라도 개방되어 있으면 해도 경찰에게 불잡혀 간다.

자유와 인권이 우선시 되는 미국에서 범죄의 많은 부분들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한국은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의 제도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길거리에 넘쳐나는 취객들을 보면 우리의 음주문화에 대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심회수·광주 북구 대촌동

시설

‘가축 대란’에 물가 불안까지 서민 막막하다

면 배추는 1주일 전보다 29%, 1년 전보다 242%나 올랐다. 콩, 팥, 녹두, 감자 등의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2배가량 급등했고 고粱이와 같지는 30% 안팎 상승했다. “장보기가 무섭다”라는 주부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가공식품도 5~50%까지 올랐다고 한다.

정부는 금리 인상 등의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인플레이션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가장 수단 중에 하나가 통화 및 환율 정책이 아닌가. 특히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과목으로 성장에 ‘올인’ 한 나머지 물가를 희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최근 물가 불안은 대증요법으로는 역부족이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물가 안정에 우선시 두고 기준금리 인상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 도매가격 시황을 보

베스요금 ‘재정부담’ 정부 적극 지원 나서야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가 올해 버스 요금 인상을 예